

기술개발만이 우리의 살길.....



“

이제 전자산업이 날로 첨단화되면서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어느때보다도 요청되는 시점에서 사천공장의 준공과 함께 미국과 유럽시장에 거점을 확보하여 NS제품을 더 많이 더 좋게 각국에 수출하는 것이 우리가 자랑이고 소망입니다.

”

귀사의 설립동기는 무엇인지요?

우리 (주) 신성기업은 '69년 성동구 군자동에서 공업용 적층판 중 메라민 판을 생산하여 건축용, 가구용, 철도차량 내장용, 선박내장용의 수입대체산업을 시작으로한 신성기업사를 전신으로 '70년에 동남아 시장에 수출을 개시하면서 착실히 내실을 기해 왔다고 봅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PCB원판이 전량수입 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 오던 차에 동박적층판 (CCL : Coper Cland Laminates) 생산을 계획, 기술연마를 통해 현 구미전자공업단지에 5,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특히 우리가 우리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관산업이 발전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없고 고용의 기회도 줄어들어

국가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귀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주) 신성기업은 고품질, 초정밀을 추구하는 고도 전자산업 사회에 대응하는 기초 소재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구정신입니다. 정보화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는 21세기의 소재산업을 보다 앞당기고자 창업 이래 메라민판, 생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거듭하며 완벽한 품질의 보다 좋은 제품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이에 만족치 않고 다양화, 고급화 되고 있는 업계의 요청을 꾸준히 수용하면서 더욱 발전된 제품과 품질화로서 수요업체 기대에

부응하며, 21세기 전기, 전자 제품의 기초소재 분야의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사장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죠?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첨단 소재인 M·L·B(Multi Layer Board)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경남 사천공단에 2만 5,000평의 부지를 확보 공장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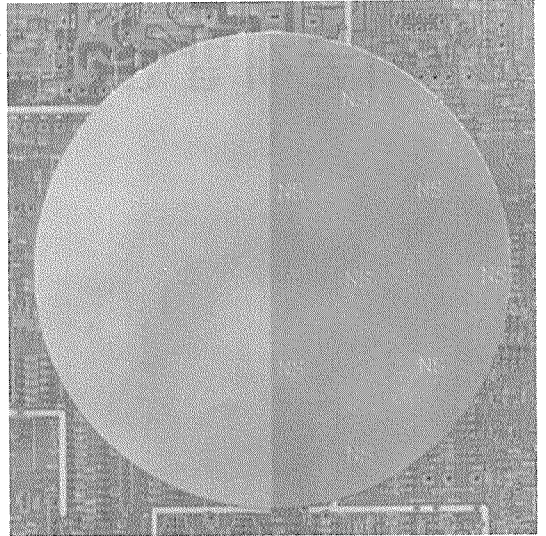
이 계획은 약 500억원을 투입하여 국제적 규모의 공장을 건립함으로써 산업용 적층판(에폭시 적층판)과 M·L·B 만을 전문 생산하여, 수입분 전량을 대체하고 나머지는 국제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공장이 완전 가동되는 '95년에는 약 5,000만불의 수입대체 효과와 1억불이상의 수출을 달성하게 됨으로서 단위제품 생산공장으로는 세계 상위그룹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사의 초창기 시절을 회고해 보신다면?

청년시절부터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결국 "기술개발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60년대만 해도 「메라민 판」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어느 한 분야에 깊이 파고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메라민 판을 선택했지만 이 재료가 불행하게도 일본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1년여의 판매점 점원노트를 했고 1965년 1차로 메라민판 가공을 위하여 왕십리에서 조그마한 창고를 세워서 소규모 공장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오늘의 (주)신성기업의 전신 신성기업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필코 메라민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마음먹은 다음부터 천신만고 끝에



제조원리를 터득했지요. 그러나 원리만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불철주야 노력하기를 4년, 드디어 1969년 8월 성동구 군자동 184번지에 대지 1,200평, 건평 300평의 메라민판 전용 공장의 준공을 보게되었으니 이 제품의 호응도는 좋았고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외화를 벌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여념이 없었어요. 정부의 시책도 그러하거니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무역협회, 재외공관 등 자료수집에 노력하는 한편 바이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1969년 8월 동남야에 처녀 수출을 하게되었는데 비록 수량은 적었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을 되뇌이며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업경영을 하시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소규모이지만 공장을 꾸려나가면서 기업경영이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인화단결, 연구노력, 책임완수의, 사훈 아래 전사원에게 철저한 품질관리, 사원의 가족화, 절약저축의 생활화를 강조하면서 협심단결하여 PCB원판 만들기에 정진하였지만 생각대로 좋은 제품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메라민판은 평활도와 본래의 재질(플라스틱)에 문제가 없고, 외관상의 흠집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의 표면상의 문제, 색상의 변화 등만 없으면 그것으로 족했지만 PCB원판은 그렇지 못했어요.

외관상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전기적 특성, 내열성, 난연성, 가공성, 휨성, 내습성 등 갖추어야 할 특성이 너무 많고 정밀성을 요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했지만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았고, 더구나 수지가 열경화성수지(熱硬化性樹脂)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가 없고 한번 잘못되면 그대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재료의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자금사정은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축적해 두었던 예비자금은 바닥나고 메라민판에서 생기는 수입금도 전액 투입되었지만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KIST를 비롯한 각 연구기관, 학계를 동분서주하면서 찾아다녔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 기술, 자금의 3박자가 잘 조화되어 균

형있는 경영이 이루어져 나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 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는 신념만은 저에게도 철칙이어서 최선의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입니까?

철학이라고 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모든 일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족 내혈육이라도 게으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아무 관계없는 생면부지의 타인이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휴지 한 장을 그대로 쓰는 일이 없고 언제나 쪼개서 쓰는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을 좋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근성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제 전자산업이 날로 첨단화하면서 이와 동시에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시점에서 우리 사천공장의 준공과 함께 미국연락 사무소를 활용하고 유럽 시장에 거점을 확보하여 「NS」(신성의 상표) 제품을 더 많이 더 좋게 각국에 수출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입니다.

